전통 '효'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행동*

Perception of Parental Filial Piety and Child-Rearing Behavior

정 옥 분**
Chung, Ock Boon
김 광 웅**
Kim, Kwang Woong
김 동 춘**
Kim, Dong Choon
유 가 효**
Yoo, Ka Hyo
윤 종 희
Yoon, Chong Hee
정 현 희**
Jeong, Hyeong Hee
최 경 순**
Choi, Kyung Soon
최 영 희**
Choi, Young Hee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parental perceptions and practice of filial piety and in child rearing practices regarding filinal pie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81 parents.

1)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parents perceive, practice and teach their children the 12 virtues of filial piety.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thers' view (perception, practices, education) of ancestor-worship as found according to child developmental stage. The significant of difference in mother's perceptions of emotional-care, ancestor-worship and persuasion and moral training was found according to child developmental stag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her's practices in moral-

* 이 논문은 1995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총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동의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산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수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training, economic-support, persuation, and ancestor-worship were found according to child developmental stage.

The singificant differences in mother's child-rearing in gratefulness, moral-training, emotional-care, persuasion, obedience to parents, and ancestor-worship were found according to child developmental stage.

3) Traditional child-rearing behavior has declined.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근대화의 추진 과정에서 발전을 추구해왔고, 현재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온 발전은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였고, 우리는 아무런 반성적 통찰없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도외시하면서 서구의 것을 숭상하고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무분별한 서구화는 자녀의 양육과 가정교육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부모자녀 관계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순수 객관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평등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과학적 관리방식의 서양식 가정교육과 자녀양육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증거의 일부는 미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이다. 그리고 미국사회는 그 극복을 위한 방법을 동양사상과의 접목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효는 우리 전통 가정규범으로 한 개인이 성장하여 제 구실을 다하면서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르침이었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父慈子孝라는 쌍무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 우주조화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 전통이다. 새로운 가치나 이념 또는 질서의 창조는 無에서부터 추구하기보다는 전통적 기반 위에서 모색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孝'를 토대로 한 자녀양육 지침으로서의 '孝' 실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서양식 자녀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민족문화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의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모색 연구의 일부로 전통 효 개념에 대한 부모역할인식 및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해보려고 한다. 즉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효 개념에 대한 인식 및 실천 가능성과 실천, 효교육, 그리고 효에 기반을 둔 자녀양육행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효에 기반을 둔 자녀교육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효 개념인식, 실천 가능성, 실천 정도를 구별한 이유로는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와 사회적인 효에 대한 통념(한국아동학회, 1995)에서 전통 '효' 개념에 대한 인식이 조선시대의 효 실천 행동으로 인식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었기 때문에 전통 '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전통 '효' 개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안다는 것과 실천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해 보기 위해 인식과 더불어 실천 정도를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효를 재음미하고, 이에 대한 규범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효의 실천이 가능한가와 자녀에게 효 교육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서양식 자녀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고유의 사상과 전통 문화를 우리의 현대 생활에서 주류화시키는데에 일익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전통 '효'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 및 자녀 양육 행동은 어떠한가?

첫째, 현대가정 아버지의 전통 '효' 개념에 대한 인식·효실천 가능성·효실천 정도·자녀에 대한 효교육 실천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효실천 가능성·효실천·자녀에 대한 효교육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자녀에 대한 지·덕·체 교육의 경향은 어떠한가?

2) 전통 '효'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 및 자녀 양육 행동은 어떠한가?

첫째, 현대가정 어머니의 전통 '효' 개념에 대한 인식·효실천 가능성·효실천 정도·자녀에 대한 효교육 실천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효실천 가능성·효실천·자녀에 대한 효교육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자녀에 대한 지·덕·체 교육의 경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전통 '효'의 개념 및 본질, 효의 현대적 의미, 子孝와 父慈, 전통사회의 자녀 양육행동은 선행연구(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과 최영희, 1996a;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과 최영희, 1996b;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과 최영희, 1996c)에서 상세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전통적 효사상, 부모역할과 현대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에 대해서만 고찰하고자 한다.

1. 전통적 효사상과 부모역할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부자관계, 인관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 반드시 좇아야 할 사항이 생겨나게 된다. 이 사항을 中庸에서는 五達道(君臣, 父子, 夫婦, 兄弟, 朋友之交)라 하였고, 孟子에서는 五倫(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라 하였다. 그리고 左傳에서는 『父義, 母慈, 兄友, 弟恭, 子孝, 內平外成』이라 하였다(이경식, 1962). 이처럼 中庸의 五達道, 孟子의 五倫은 가족도덕에서 사회도덕에까지 확장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父子關係를 특히 중시하였으며, 孝정신을 제도덕의 시발점인 동시에 귀결점으로 삼았다. 여기서는 전통적 효사상에서 부모 역할인 父義母慈,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인 父慈子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식에 대한 愛着과 情理에 근거한 부모로서의 本務가 義慈이고, 자식은 부모의 愛情과 恩惠之感에 대해 자연발생적인 孝道를 하는 것이다. 부모

역할로서의 父義母慈, 즉 慈情은 종족보존의 본능이므로 慈情없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부모자녀관계에서 孝誠은 장려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慈情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孝道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여 왔다. 비유하면 慈情은 흐르는 물과 같고, 孝道는 상승하는 불과 같다. 예컨데 물은 자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불은 인간이 보살피지 않으면 꺼져버리기 쉬우므로 불에 해당되는 孝誠은 강조하고 생활화하도록 하였던 것이다(유점숙, 1994). 그러므로 부모자녀관계는 하향적 父慈와 상향적 子孝가 일체가 되어야 한다.

父慈子孝의 윤리적 의의는 첫째, 가정적 공동체로서 혈연의 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다분히 감정적인 것으로 愛敬의 情이 자연 발로되는데 있다. 부모의 정은 慈愛의 情, 자식의 情은 敬慕의 孝心으로 나타난다. 둘째, 父慈子孝는 共時共所的이어야 한다. 時雨(父慈)가 내리는 곳에 새싹(孝心)이 자라며, 새싹의 성장을 위하여 時雨(父慈)가 필요하다. 따라서 子孝해야 父慈하게 된다든가 父慈라야 子孝하게 된다는 선후관계는 있을 수 없으며 부자의 혈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천륜의 굳은 유대인 것이다(유원동, 1977).

한편 전통적 부모역할 중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바른 태도는 嚴하고 親함이고, 어머니가 그 자녀를 대하는 올바른 방식은 자비로움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嚴親이라 하고 어머니를 慈堂이라고 하였다. 부모의 이러한 역할이 전통적인 한국가정의 자녀교육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원리가 되어온 것이다(고충수, 1989). 한국의 전통적 嚴父慈母의 가정교육원리란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하지만 자녀들이 잘못하면 嚴(fear)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고,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여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자비로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父性의 두려움은 모성의 사랑과 함께 아동의 '인격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이계학, 1979).

위에서 살펴본 바에서 효가 단순히 부모에 대한 일방적으로 요구되고 행해야 할 덕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孝의 실천은 자식이 부모에게 이끌리는 위로에의 사랑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아래로에의 사랑이 합일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義, 慈, 孝 三者의 삼위일체적인 조화 합일로서만이 達孝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하에서 효의 실천은 父慈, 子孝의 쌍무적인 관계에서 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父慈, 子孝의 상세한 소개는 선행연구(정옥분 외 7, 1996a; 정옥분 외 7, 1996b; 정옥분 외 7, 1996c)에서 다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父慈, 12덕목, 子孝 12덕목에 대해 간단히 개념만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父慈 12덕목

① 修身:한국 전통문화에서 부모들의 자식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닦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식가르침 뿐아니라 세상 일을 처리하는 모든 절차가 修身으로부터 시작되었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세상만사를 처리하는 근본으로 삼았던 것을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물며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父義父慈의 실천에서 修身이 으뜸가는 덕목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② 模範:우리의 조상들은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方法的 道理로서 垂範(수범)의 原理를 제일로 하였다. 스스로 行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자식을 기르고 가르쳤다.

③ 責任:士小節의 婦儀의 敎習에 이르기를

"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집을 망치고, 딸을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친다. 그러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죄다. 고식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버려두는 것은 한없는 조심과 해로움을 끼치는 것이니, 나의 아들·딸 된 사람으로서 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금수와 다름없이 될 것이니 어찌 두려운 생각을 아니하겠는가?"하였는바, 이는 子息을 둔 父母의 責任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구절이라고 하겠다.

④ 精誠:우리의 선조들은 자식을 낳아 기르고 가르침에 있어서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정성은 胎敎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선조들의 胎敎精神과 그 實踐의 方道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소학에 소개된 文王의 어머니인 太任의 정성어린 태교가 아들을 周나라의 으뜸 임금으로 키워낸 예화나, 烈女傳에 소개된 胎敎의 가르침은 모두 부모의 자식양육에 대한 精誠을 요구하는 본보기라 하겠다. 자식이 크면 그 건강과 하는 일을 위해 정한수 떠놓고 아침 저녁으로 精誠을 들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자식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전적으로 父母의 정성에 달려있음을 나타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⑤ 犧牲: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의 부귀영화는 물론 건강과 생명까지도 바치려는 무의식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전통적 心性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犧牲은 자식에 대한 우리 부모들의 기본적인 태도였고, 현금에도 상당한 정도로 이러한 희생적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內訓에서 현령의 딸 초에 대한 계모의 희생적 태도를 부녀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자식을 위해 계모조차 목숨을 아깝다 하지 않고 前室자식을 지켰는데, 하물며 親父母의 경우야 더 이를 데 없다는 敎訓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⑥ 忍耐:우리 선조들은 "참는다"는 것을 人生의 기본적 태도로 삼았다. 子息을 기르고 가르치는데 있어서도 급히 서둘러 효과를 기대하거나, 충격적이고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父母로서 할 수 있는 精誠을 다하고 하늘의 恩德을 기다리는 기본 입장을 중시하였다.

⑦ 嚴親:嚴父慈母는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父母子女關係 또는 子女敎育의 근본이었다. 맹목적이고 무절제한 사랑은 배척되었고, 엄격함과 자애로움이 조화를 이룬 것을 최선의 父母子女關係로 보았던 것이다.

⑧ 尊重:"貴하게 키운 자식이 貴하게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녀에 대한 존중심은 우리 선조들의 보편적인 子女觀이었다.

⑨ 關心:父母가 子息에게 관심을 두고 각별히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論語에서 孔子가 이르기를 "父母는 오직 자식들의 질병을 걱정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앞에서 논의한 精誠, 忍耐, 尊重의 덕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⑩ 가르침:童蒙先習에 "부모는 자식을 올바른 도리로 가르쳐서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며…", 또 士小節에 "갓난 망아지는 착실하고 엄격하게 길들여 좋은 기술을 익히게 하지 않으면 좋은 천리마를 만들지 못하고…", 이 밖에도 부모의 가르침에 관련된 내용은 小學, 士小節, 擊蒙要訣 등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⑪ 寬大:너그럽고 인자함은 父母됨의 기본이다. 부모 뿐 아니라, 아동을 기르고 가르치는 사람을 구함에도 그 성격적 자질로서 너그럽고 인자함을 중시했다. 內訓의 立敎篇에 보면 "자녀를 낳으면 여러 서모나 그 밖의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마음이 너그럽고 인자하며, 웃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매사에 신중하며, 말이 적은 사람을 가

려서 아이의 스승이 되게 하라"고 부모역할을 가르쳤다.

⑫ 믿음:믿음은 人間關係의 근본이다. 상호간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아무리 父母라 하더라도 子息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앞의 열한가지 덕목은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만다. 人間에 대한 믿음, 특히 아동의 발달과 인격에 대한 믿음은 人本主義의 핵심개념이다.

2) 子孝 12 덕목

① 感謝: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② 修身:부모가 온전히 해서 낳았으니 자식은 온전히 해서 돌려보내야 한다.

③ 奉養:부모 봉양은 孝의 가장 기본이다. 부모를 물리적으로 보살피고 봉양하는 것을 小孝로 구분하고 있지만, 물리적 奉養없는 中孝나 大孝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봉양은 孝의 기본이 된다.

④ 安樂:부모에 대한 물리적 봉양에 이어서 孝行의 중요한 내용은 부모의 心身을 안락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⑤ 恭敬:父母를 존중하는 恭敬의 德은 大孝이다.

⑥ 忠諫:전통적으로 孝라면 무조건 父母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잘못 인식된 경우도 있으나, 참된 孝는 父母의 잘못을 간곡하게 간하고, 부모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데 있다.

⑦ 承志:부모의 뜻을 살펴서 따르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문화에서는 承志를 孝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다.

⑧ 立身:孝의 本質은 父母子女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몸과 마음을 닦고 학문을 연마하여 세상에 봉사하고 이름을 남기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⑨ 追慕: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모시는 喪이나 祭祀는 전통문화에서 孝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⑩ 節制:孝는 父母와 子女간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孝는 사람의 삶과 관련된 욕망을 절제하여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귀히 여기는 것이다.

⑪ 禮儀:孝는 당연히 父母에 대한 禮는 말할 것도 없고, 타인에 대한 모든 禮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⑫ 宇宙調和:孝는 인공적인 것이라기 보다 자연의 섭리라는 정신을 우리의 조상들은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즉 孝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우주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2. 현대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개방된 세계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들에게 미래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덕목과 자세와 능력을 길러주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이다. 요즈음 자녀교육의 큰 문제는 아버지가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해 그 책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가정교육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구조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으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 가정교육 문제에 대한 국내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현대 가정의 부모역할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아버지의 역할 및 자녀 양육

아버지의 존재가 아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면서, 국내 연구들은 아버지의

특성이나 양육 유형과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밝히거나,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아동과 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아동을 비교하여 차이를 규명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1970년 초반부터 약 25년 간에 걸친 140편의 기존연구를 개괄적으로 고찰한 최경순의 연구(1990b, 1992)는 아버지 역할과 아동의 성격, 사회적 성숙 기대, 가치관, 정의적 특성, 남아의 자조능력, 여아의 의사전달, 자기통제력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아동의 학습지도·대화·오락·물적 환경 제공과도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친구관계, 가치관 전달자, 의논상대로서의 아버지 역할은 잘 수행되고 있지 않았다.

그밖에 아버지 자신의 교육관(김명수, 1984), 교육프로그램 참여(박영중, 1985; 이옥자, 1983), 교육적 기능(이계학, 1979), 아버지상(김은아, 1982)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자녀에 대한 교육방법은 대체로 비일관적이었고, 성인중심적인데 반하여 교육목표는 아동중심적이어서 아버지의 교육관과 양육태도는 비교적 불일치한 경향이었다(김명수, 1984). 태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과 관심을 보였으나 행동으로 실천하는 아버지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차은영, 1987).

아동발달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발달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양육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최경순, 1992), 아버지의 역할 차원은 아동의 연령증가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이나 실제적 양육지침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그리고 효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 역할이 사회변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가 거의 없고, 우리 문화전통에서 아버지 역할의 어떤 점이 전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대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이상적 아버지 역할이 무엇인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 '효'에 대한 아버지 역할 및 자녀양육 실제를 분석하여 바른 가정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모색을 하는데 일익이 되고자 한다.

2) 어머니의 역할 및 자녀 양육

전통사회에서의 효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도리이며,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고, 귀결점이었다. 어머니의 역할도 효사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소학, 태교신기, 동의보감, 내훈, 사소절 등의 문헌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자신을 닦고 모범을 보이며,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정성, 희생, 인내, 관심, 존중, 관대, 믿음을 가져야 하며, 아버지의 엄격함과 상호 보완되는 자애로움을 지녀야한다.

현대 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가정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서구의 양육행동의 모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해석을 한다거나, 서구의 이상형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리의 전통 양육의 관점에서 서구 양육과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정현희, 1990).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문

화적 배경은 도외시된 채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서구의 관점에서 해석되거나 우리의 양육행동의 장점이 왜곡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는 양육행동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는 연구와 이 모형을 기본으로 자녀의 행동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이다. 먼저 양육행동 척도에 대한 연구들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행동 요인의 구체적인 행동 내용은(정현희, 1990), 1)시간·활동 등의 공유, 2)애정의 표현, 3)정서적 지지, 4)아동중심적 태도, 5)아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6)자립적 사고의 고무, 7)격려, 8)독립성 강조, 9)성장의 촉구, 10)성숙의 기대, 11) 훈육의 정당성, 12)합리적 해결과정 조성, 13)부정적 평가, 14)거부적 태도, 15)무관심, 16)방임, 17)엄격한 지시, 18)통제에 엄포 사용, 19)어머니의 우세, 20)어머니의 염려·불안, 21)어머니의 간섭, 22)과보호, 23)맹종, 24)의존, 25)훈육방침의 비일관성·모호, 26)부모간의 불일치로 이런 어머니의 행동 내용은 기본 틀이 서구의 모형이며, 우리나라 전통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 엄부자모, 그리고 한국 어머니의 지극 정성, 기다림, 인내, 희생, 모순 등의 서구 사고에 의해 이해되기 어려운 행동 등은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서구의 양육행동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자녀의 행동과 어머니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도(정현희, 1986), 취침시간, 낯선 상황에 접할 기회 제공, 올바른 식습관 지도, 자기방 정리, 자신의 욕구 조절 등에 관해서는 다루고 있으나, 우리 문화의 특성, 예를 들면 식습관 형성에서 검소한 음식을 먹게 하거나, 사치의 경계, 절제를 통한 품위 보존의 훈련 등 조사되지 않은 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원(1983)의 한국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태도 연구를 보면, 부모의 명령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부모가 그른 경우 부모에게 간하다가도 끝까지 우기시면 부모의 뜻에 따른다는 전통의 방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다를 수 있으며,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정하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연구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은 어머니의 의존 및 염려를 수용(정현희, 1992)으로, 어머니의 간섭을 애정으로(정현희, 1993), 어머니의 염려를 애정으로(Saavedra, 1980)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서구의 틀에 의한 우리나라 어머니 양육행동 모형 구축의 한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우리의 전통 양육방법인 자녀에 대한 믿음, 정성, 희생과는 달리 평등주의, 합리주의, 객관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서구의 양육모형이다. 우리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간과하고, 서구의 양육행동을 그대로 본 받기도 어려우며, 서구의 양육행동을 그대로 본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화 차이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동을 유도하기도 힘들 것이다. 우리의 문화적 틀에서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고, 이것이 실제로 자녀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Ⅲ. 연구의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전국의 주요 지역(경인·경상·전라·충청)에서 표집한 영유아의 부모 204명, 아동청소년의 부모 477명 총 681명이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연구자들이 선행 문헌을 참고하여 '父慈子孝'의 덕목을 질문지로 작성한 것이다. 질문지는 일반적 특성을 묻는 12문항, 그리고 子孝 12덕목(감사, 수신, 공경, 충간, 안락, 봉양, 추모, 승지, 입신, 예의, 절제, 우주조화)에 관하여 전통 '효'개념에 대한 인식,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 정도, 자녀에 대한 효교육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15문항씩의 질문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父慈 12덕목(엄친, 가르침, 모범, 희생, 수신, 책임, 정성, 관심, 존중, 관대, 믿음, 인내)에 관한 문항(영아부모용 18문항, 유아부모용 24문항, 아동청소년 부모용 40문항)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을 묻는 4문항을 포함하여 총 139문항을 제작하였는데, 측정 도구의 제작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 과정

본 연구자들은 부모와 자녀의 효에 대한 개념을 인격완성의 과정, 자아실현, 박애 추구에 목적을 두고 부자자효의 쌍무호혜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하여 이제까지 소개된 효와 자녀양육에 관한 문헌을 수집하여 장기간에 걸쳐 읽은 후 여러 차례의 토론을 하였다. 이제까지 소개된 효에 관한 문헌들 속에는 충격요법의 극단적인 효사례가 많았고, 현대 가정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효로서 그것도 자효에 대한 당위성, 경로의 권리주장을 중심으로 소개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천편일률적인 인상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자들은 토론과정에서 현대사회에는 절대윤리와 상대윤리가 병존해야 하고, 어릴수록 절대윤리를 강조하여야 하며, 자녀성장에 따라 효 수준이 달라져야 함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효의 본질을 설명할 때 '부자자효'의 쌍무호혜성, 부모역할을 상정해서 개념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인식하였다. 그래서 효의 개념 규정을 '부자자효', '전통윤리에 입각한 자녀교육'에 초점을 두어 질문 문항을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효의 실천성을 고려하여 효의 행동 범주를 정하였고, 각 범주에 해당되는 선행문헌을 기초로 해서 추출된 하위 덕목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수차례 검토하였다. 전통 '효'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효의 인식 정도,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 정도, 그리고 자녀에 대한 효교육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하기로 하였다.

2) 2차 과정

본 연구자들은 1차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전통 '효'에 대한 인식은 예, 아니오로 응답케 하는 질문지로 구성하였고,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 정도, 자녀에 대한 효교육 정도, 그리고 부모의 양육실제에 관한 문항은 4점 리커트식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문항은 고전과 선행문헌에서 추출한 전통 '효'개념의 덕목에서 현대사회에서 실천가능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인정되는 덕목을 추출하였으며, 각 덕목의 하위 문항

에 대해서는 8인 공동연구자들이 문항마다 토론을 거쳐 검토한 후 8인 모두 의견이 일치된 문항에 한해서 본연구의 질문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자들이 제작한 子孝 12덕목에 대한 Cronbach α가 전통 '효'에 대한 인식 .77, 효실천 가능성 .89, 효실천 정도 .88, 효교육 .88, 부모의 양육실제 .89로서 신뢰도는 비교적 높았다. 척도의 타당도 검증은 아동학 전공교수 8인이 면밀히 내용타당도를 구하였으며, 8인이 모두 일치한 견해의 문항만 선정하였으므로 타당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작성한 질문지를 각 대상 10명씩 총 80명에게 2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이해도, 소요시간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본조사의 질문지를 작성하여 1996년 5월 4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본 연구자들 8명이 분담하여 각 지역 교육기관의 교사를 통해 대상 학생과 부모들에게 배부하여 기재하도록 의뢰하였으며, 회수된 1230부 중에서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681부의 자료를 통계처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681부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연구의 문제에 따라 t-test, F-test, X^2-test, 추후검정은 Scheffé-test로 통계처리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전통 '효'개념에서 본 현대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양육행동

1) 아버지의 전통 '효'개념에 대한 인식,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과 자녀에 대한 효교육 정도

〈표 1) 아버지의 전통 '효'개념에 대한 인식(빈도,백분율)

하위변인	아 버 지	
	예	아니오
감 사	209(99.1)	2(0.9)
수 신	202(96.2)	8(3.8)
공 경	205(96.9)	7(3.1)
충 간	138(69.3)	61(30.7)
안 락	207(97.6)	5(2.4)
봉 양	160(87.1)	27(12.9)
추 모	182(86.7)	28(13.3)
승 지	174(84.1)	33(15.9)
입 신	192(91.0)	19(9.0)
예 의	156(77.4)	44(22.6)
절 제	153(76.1)	48(23.9)
우주조화	139(69.8)	60(30.2)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가정 아버지의 전통 '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전통 '효'의 하위 변인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아버지들이 전통 '효'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효의 하위변인 모두 70%이상). 전통 '효'의 하위 변인 별로 아버지의 인식 정도의 순서를 살펴보면 감사(99.1%), 안락(97.6%), 공경(96.91%), 수신(96.2%)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 '효'의 개념에 속하는데도 효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도 상당수 있었는데, '효'의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충간(30.7%), 우

주조화(30.2%), 절제(23.9%), 예의(22.6%), 승지(15.9%), 추모(13.3%)의 순서로 이것을 전통 '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아버지의 효실천 가능성 • 효실천 정도 • 효교육(평균, 표준편차)

하위변인	효실천가능성		효실천정도		효 교 육	
	M	*SD*	*M*	*SD*	*M*	*SD*
감 사	3.53	.63	3.55	.53	3.39	.64
수 신	3.28	.62	3.25	.60	3.53	.56
봉 양	3.11	.70	2.87	.80	2.69	.76
안 락	3.34	.65	3.39	.58	3.22	.62
공 경	3.28	.55	3.29	.55	3.48	.48
충 간	2.82	.77	2.78	.82	2.84	.84
승 지	2.99	.72	3.08	.67	2.91	.70
입 신	3.26	.60	3.28	.57	3.55	.58
추 모	3.07	.86	3.12	.82	3.01	.89
절 제	3.07	.66	3.13	.58	3.38	.58
예 의	3.25	.58	2.87	.49	3.52	.51
우주조화	3.17	.72	3.28	.63	3.42	.64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대가정 아버지들의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 정도, 자녀에 대한 효교육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효'의 하위 변인에 따라 평균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평균이 높은 편이었다. 아버지의 '孝' 관에 대한 내용 중 우선 효실천 가능성의 하위 변인 평균을 살펴보면 감사(M=3.53), 안락(M=3.34), 수신(M=3.28), 공경(M=3.28), 예의(M=3.25) 등의 평균이 비교적 높았고, 효실천 가능성의 평균이 비교적 낮은 변인은 충간(M=2.82), 승지(M=2.99)이었다.

아버지 자신의 효실천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평균이 비교적 높은 하위 변인을 살펴보면 감사(M=3.55), 안락(M=3.39), 공경(M=3.29)이었고, 효실천 정도의 평균이 비교적 낮은 변인은 충간(M=2.78), 봉양(M=2.87), 예의(M=2.87)이었다.

한편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효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효'의 하위 변인 중 입신(M=3.55), 수신(M=3.53), 예의(M=3.52), 공경(M=3.48)에서 효교육의 평균이 비교적 높았고, 효교육 실천 정도의 평균이 비교적 낮은 변인은 봉양(M=2.69), 충간(M=2.84), 승지(M=2.91)이었다.

2)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과 자녀에 대한 효교육 정도

〈표 3〉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효실천 가능성 차이

하위변인	영 아		유 아		아동·청소년		F
	M	SD	M	SD	M	SD	
감 사	3.70	.48	4.00	.00	3.54	.66	0.98
수 신	3.10	.31	3.33	.57	3.23	.64	0.27
봉 양	3.05	.79	3.66	.57	3.14	.67	.095
안 락	3.10	.31	3.33	.57	3.33	.67	0.60
공 경	2.95	.28	3.00	.50	3.31	.51	2.85***
충 간	2.40	.51	2.33	.57	2.78	.72	1.83
승 지	2.90	.56	3.33	.57	3.29	.73	0.42
입 신	3.00	.27	3.33	.57	3.27	.58	1.05
추 모	1.90	1.10	3.33	.57	3.20	.71	13.71***
절 제	3.00	.47	3.33	.57	3.15	.66	0.38
예 의	3.10	.61	3.50	5.0	3.35	.47	1.37
우주조화	3.00	.94	3.00	1.00	3.22	.65	0.61

***$p<.001$ $df=173$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효실천 가능성에 대한 차이 비교에서는 전통 '효'의 하위 변인 중 공경($F=2.85$, $p<.05$), 추모($F=13.71$, $p<.001$)에서 아버지의 효실천 가능성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표 4〉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효실천 정도 차이

하위변인	영 아		유 아		아동·청소년		F
	M	SD	M	SD	M	SD	
감 사	3.50	.52	3.33	.57	3.56	.55	0.28
수 신	3.10	.56	3.33	.57	3.20	.59	0.22
봉 양	2.05	.63	3.33	.57	2.88	.73	1.45
안 락	3.10	.31	3.33	.57	3.41	.59	1.36
공 경	3.05	.43	3.33	.26	3.30	.55	1.00
충 간	2.30	.67	2.33	.57	2.74	.82	1.67
승 지	2.80	.42	3.00	1.00	3.04	.67	0.59
입 신	3.20	.63	3.33	.57	3.25	.52	0.08
추 모	1.50	.84	3.00	1.00	3.17	.68	25.15***
절 제	3.10	.56	3.33	.57	3.10	.60	0.21
예 의	3.25	.54	3.33	.76	3.33	.42	0.15
우주조화	3.20	.63	3.33	.57	3.25	.61	0.06

***$p<.001$ $df=173$

전통 '효'의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공경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많은 아버지일수록 효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추모의 경우는 유아(M=3.33)의 아버지가 영아(M=1.90)나 아동·청소년(M=3.20) 아버지보다 효실천 가능성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공경과 추모를 제외한 하위 변인 즉 감사·수신·충간·안락·봉양·승지·입신·예의·절제·우주조화에서는 아동발달에 따른 아버지의 효실천 가능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효실천 정도 비교에서는 전통 '효'의 하위 변인 중 추모(F=25.15, p<.001)에서 아버지의 효실천이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자녀의 연령이 많은 아버지일수록 추모의 효실천 평균이 높았다.

그러나 추모를 제외한 '효'의 하위 변인 즉 감사·수신·공경·충간·봉양·승지·입신·예의·절제·우주조화 등의 변인에서는 아동발달에 따른 아버지의 효실천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표 5〉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효교육 차이

하위변인	영 아		유 아		아동·청소년		F
	M	SD	M	SD	M	SD	
감 사	3.50	.52	3.50	.57	3.35	.67	0.28
수 신	3.50	.70	3.25	.50	3.52	.57	0.40
봉 양	2.25	.65	3.12	.25	2.68	.74	1.34
안 락	3.00	.66	2.75	.50	3.20	.57	1.64
공 경	3.40	.45	3.37	.47	3.50	.51	0.29
충 간	2.70	.48	2.25	.50	2.75	.87	0.70
승 지	2.80	.63	2.75	.50	2.87	.70	0.11
입 신	3.60	.69	3.25	.50	3.53	.61	0.47
추 모	1.70	.82	2.50	.57	3.04	.83	12.35***
절 제	3.40	.51	3.00	.81	3.36	.58	0.78
예 의	3.50	.52	3.25	.50	3.54	.55	0.56
우주조화	3.40	.69	3.25	.50	3.44	.62	0.21

***p<.001 df=17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효교육 정도에 대한 비교에서는 전통 '효'의 하위 변인 중 추모(F=12.35, p<.001)변인에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효교육이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아동의 연령이 많은 아버지일수록 추모의 효교육을 실시하는 평균이 높았다.

그러나 그밖의 효 내용, 즉 감사·수신·공경·충간·안락·봉양·승지·입신·예의·절제·우주조화 등의 변인에서는 아동발달에 따른 아

버지의 효교육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3)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실제, 자녀에 대한 지·덕·체 교육 경향

〈표 6〉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실제 (평균, 표준편차)

하위변인	영 아		유 아		아동·청소년	
	M	*SD*	*M*	*SD*	*M*	*SD*
엄 친	2.80	.42	2.92	.57	3.25	.40
가르침	3.03	.29	3.25	.38	3.49	.63
모 범	3.20	.42	3.38	.25	3.20	.55
희 생	3.20	.63	2.50	.58	3.25	.66
수 신	3.05	.26	3.00	.41	3.29	.49
책 임	3.00	.33	2.88	.25	3.17	.59
정 성	3.35	.34	3.25	.50	3.38	.56
관 심	3.30	.67	3.00	.00	3.20	.51
존 중	3.30	.48	3.00	.00	3.32	.46
관 대			3.00	.00	3.19	.55
믿 음					3.32	.53
인 내					2.81	.70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양육실제의 하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영아 아버지의 경우, 정성($M=3.35$)·관심($M=3.30$)·존중($M=3.30$), 유아의 아버지는 모범($M=3.38$)·가르침($M=3.25$)·정성($M=3.35$),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아버지는 가르침($M=3.49$)·정성($M=3.38$)·존중($M=3.32$)·믿음($M=3.32$)의 변인 순으로 다른 하위 변인보다 평균이 높았다.

그리고 영아 아버지는 엄친($M=2.80$)·책임($M=3.00$)·가르침($M=3.03$), 유아 아버지는 희생($M=2.50$)·책임($M=2.88$)·엄친($M=2.92$),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아버지는 인내($M=2.81$)·책임($M=3.17$)·관대($M=3.19$) 순으로 다른 하위 변인보다 평균이 낮았다.

〈표 7〉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지·덕·체 교육(평균, 표준편차)

하위항목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M	*SD*	*M*	*SD*	*M*	*SD*
지	4.34	1.101.	3.83	1.19	4.09	.96
덕	4.394.	04	4.22	1.10	4.09	1.00
체	63	1.05	4.56	.85	4.51	.78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발달에 따른 아버지의 지·덕·체 교육 정도의 비교에서는 지·덕·체 교육 모두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에 비해 교육실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을 둔 아버지의 경우 지·덕·체 교육전

반에 걸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지·덕·체 교육실제에 참여하는 정도는 낮았다.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을 하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적 교육의 정도는 초등(M=4.34), 고등(M=4.09), 중등학생(M=3.83)의 아버지 순으로 평균이 높았고, 덕과 체를 강조한 교육은 초등(M=4.39, M=4.63), 중등(M=4.22, M=4.56), 고등학생(M=4.09, M=4.51)의 아버지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2. 전통 '효'개념에서 본 현대 어머니의 역할 및 자녀양육행동

1) 어머니의 전통 '효'개념에 대한 인식,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과 자녀에 대한 효교육 정도

〈표 8〉 어머니의 전통 '효'개념에 대한 인식(빈도, 백분율)

하위항목	어머니	
	예	아니오
감 사	352(94.9)	19(5.1)
수 신	359(95.7)	16(4.3)
공 경	359(96.1)	15(3.9)
충 간	224(62.6)	134(37.4)
안 락	369(99.2)	3(0.8)
봉 양	289(78.5)	79(22.5)
봉 양	328(88.4)	43(11.6)
추 모	290(78.8)	78(21.2)
승 지	283(77.3)	83(22.7)
입 신	330(89.4)	39(10.6)
oP 의	290(78.8)	75(20.8)
절 제	279(76.6)	85(23.4)
우주조화	265(72.4)	101(27.6)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가정 어머니의 전통 '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전통 '효'개념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효'개념의 하위 변인별로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보면 안락(99.2%), 공경(96.1%), 수신(95.7%), 감사(94.9%)순으로 전통 '효'를 바르게 알고 있는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전통 '효'개념에 속하는 데도 '효'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어머니도 상당수 있었는데, '효'의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충간(37.4%), 우주조화(27.6%), 절제(23.4%), 승지(22.7%) 등의 순으로 이것을 전통 '효'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표 9〉 어머니의 효실천 가능성·효실천 정도·효교육 정도(평균, 표준편차)

하위항목	효실천가능성		효실천정도		효 교 육	
	M	SD	M	SD	M	SD
감 사	3.40	.64	3.45	.59	3.32	.64
수 신	3.31	.61	3.27	.65	3.50	.54
공 경	3.15	.69	3.19	.61	3.41	.58
충 간	2.80	.72	2.76	.75	2.75	.80
안 락	3.23	.68	3.26	.60	3.12	.67
봉 양	2.84	.84	2.48	1.00	2.59	.95
추 무	2.81	.88	2.70	.92	2.72	.95
승 지	2.82	.77	2.82	.71	2.83	.80
입 신	3.20	.62	2.97	.63	3.52	.62
예 의	3.00	.65	3.13	.58	3.44	.59
절 제	2.99	.67	3.11	.61	3.32	.62
우주조화	3.19	.69	3.26	.60	3.47	.58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대가정 어머니들의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 정도, 자녀에 대한 효

교육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비교적 평균이 높은 편이었다. 어머니의 '효'관에 대한 내용중 우선 효실천 가능성의 하위 변인 평균을 살펴보면 감사(M=3.40), 수신(M=3.31), 안락(M=3.23), 입신(M=3.20) 등의 순으로 평균이 높았고, 효실천 가능성의 평균이 낮은 변인은 충간(M=2.80), 추모(M=2.81), 승지(M=2.82), 봉양(M=2.84)의 순이었다.

어머니 자신의 효실천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평균이 비교적 높은 하위 변인을 살펴보면 감사(M=3.45), 수신(M=3.27), 안락(M=3.26), 우주조화(M=3.26)의 순이었고, 효실천 정도의 평균이 비교적 낮은 변인은 봉양(M=2.48), 추모(M=2.70), 충간(M=2.76), 승지(M=2.82)이었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에 대하여 효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효'의 하위 변인중 입신(M=3.52), 수신(M=3.50), 우주조화(M=3.47)의 순으로 효교육의 평균이 높았고, 효교육 실천 정도의 평균이 낮은 변인은 봉양(M=2.59), 추모(M=2.72), 충간(M=2.75)의 순이었다.

2)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과 자녀에 대한 효교육 정도

〈표 10〉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효실천 가능성 차이

하위변인	영 아		유 아		아동·청소년		F
	M	SD	M	SD	M	SD	
감 사	3.40	.65	3.40	.53	3.39	.62	0.01
수 신	3.45	.54	3.01	.58	3.26	.54	3.80*
봉 양	2.57	.58	2.78	.66	2.92	.73	4.45
안 락	3.15	.42	3.22	.51	3.27	.71	0.56
공 경	3.18	.35	3.18	.38	3.25	.55	0.58
충 간	2.45	.62	2.82	.68	2.82	.71	5.12**
승 지	2.68	.63	2.79	.63	2.90	.70	1.86
입 신	3.20	.40	3.17	.53	3.18	.60	0.03
추 모	2.34	.77	2.60	.80	2.92	.81	9.75**
절 제	3.00	.43	3.08	.63	3.03	.64	0.24
예 의	3.15	.41	3.25	.47	3.26	.54	0.76
우주조화	3.22	.56	3.26	.49	3.26	.66	0.07

*p<.05 **p<.01 df=238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효실천 가능성에 대한 차이 비교에서는 전통 '효'개념의 하위 변인 중 수신(F=3.80, p<.05), 충간(F=5.12, p<.01), 봉양(F=4.45, p<.05), 추모(F=2.34, p<.01)에서 어머니의 효실천 가능성이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전통 '효'의 하위 변인로 살펴보면 수신의 경

우, 자녀의 연령이 어린 어머니일수록 효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간의 경우는 유아(M=2.82)와 아동·청소년(M=2.82)의 어머니가 영아(M=2.45)의 어머니보다 효실천 가능성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봉양 변인의 경우는 자녀의 연령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효실천 가능성이 높다고 여김을 알 수 있다. 추모의 경우에도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효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신·충간·봉양과 추모를 제외한 전통 '효'의 하위 변인 즉 감사·공경·안락·승지·입신·예의·절제·우주조화에서는 아동발달에 따른 어머니의 효실천 가능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1〉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효실천 정도 차이

하위변인	영 아		유 아		아동·청소년		F
	M	SD	M	SD	M	SD	
감 사	3.47	.54	3.37	.57	3.47	.57	0.49
수 신	3.36	.61	3.04	.52	3.23	.67	2.82
봉 양	2.52	.80	2.40	.80	2.68	.82	2.30
안 락	3.04	.37	3.11	.48	3.30	.64	4.34*
공 경	3.09	.37	3.05	.41	3.21	.49	2.76
충 간	2.25	.65	2.53	.66	2.80	.69	11.88***
승 지	2.72	.45	2.80	.62	2.94	.71	2.15
입 신	3.15	.47	3.06	.44	3.07	.65	0.39
추 모	2.13	.79	2.28	.81	2.91	.86	19.92***
절 제	3.00	.43	3.02	.45	3.07	.63	0.41
예 의	3.15	.40	3.18	.34	3.24	.51	0.74
우주조화	3.18	.49	3.13	.45	3.33	.54	3.49*

*p<.05 ***p<.001 df=238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효실천 정도 비교에서는 전통 효의 하위 변인중 충간(F=11.88, p<.001), 안락(F=4.34, p<.05), 추모(F=19.92, p<.001), 우주조화(F=3.49, p<.05)에서 어머니의 효실천에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자녀의 연령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충간·안락·추모·우주조화의 효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효의 하위 변인 즉 감사·수신·공경·봉양·승지·입신·예의·절제 등의 변인에서는 아동발달에 따른 어머니의 효실천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표 12〉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효교육 정도 차이

하위변인	영 아		유 아		아동·청소년		F
	M	SD	M	SD	M	SD	
감 사	3.27	.59	3.04	.63	3.35	.65	3.96*
수 신	3.30	.46	3.40	.49	3.56	.52	5.17**
봉 양	2.24	.70	2.21	.65	2.61	.78	7.26***
안 락	2.79	.77	2.88	.61	3.17	.59	7.83***
공 경	3.31	.42	3.22	.42	3.47	.50	5.61**
충 간	2.41	.76	2.42	.72	2.76	.81	5.34**
승 지	2.41	.58	2.57	.62	2.90	.76	9.49***
입 신	3.34	.57	3.42	.69	3.56	.58	2.54
추 모	2.04	.78	2.26	.80	2.82	.91	16.97***
절 제	3.34	.48	3.26	.65	3.31	.63	0.20
예 의	3.39	.47	3.47	.45	3.56	.49	2.33
우주조화	3.39	.49	3.48	.54	3.50	.57	0.63

*p<.05 **p<.01 ***p<.001 df=238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효교육 정도에 대한 비교에서는 전통 '孝'의 하위 변인 중 감사(F=3.96, p<.05), 수신(F=5.17, p<.01), 공경(F=5.61, p<.01), 충간(F=5.34, p<.01), 안락(F=7.83, p<.001), 봉양(F=7.26, p<.001), 추모(F=16.97, p<.001), 승지(F=9.49, p<.001)의 변인에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효교육에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아동의 연령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위 하위 변인의 효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밖의 효내용, 즉 입신·예의·절제·우주조화의 변인에서는 아동발달에 따른 어머니의 효교육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3)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실제 및 자녀에 대한 지·덕·체 교육 경향

〈표 13〉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실제(평균, 표준편차)

하위변인	영 아		유 아		아동·청소년	
	M	SD	M	SD	M	SD
엄 친	3.16	.44	3.10	.47	3.24	.39
가르침	3.27	.45	3.30	.34	3.50	.54
모 범	3.10	.45	2.96	.48	3.19	.67
희 생	3.20	.63	2.80	.62	3.09	.44
수 신	3.04	.38	3.01	.39	3.29	.56
책 임	2.93	.36	2.85	.51	3.15	.51
정 성	3.27	.52	3.27	.43	3.45	.47
관 심	3.30	.67	3.00	.00	3.30	.47
존 중	3.30	.48	3.45	.44	3.38	.53
관 대			3.17	.57	3.40	.51
믿 음					3.19	.78
인 내					2.91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의 양육실제의 하위 변인 평균을 비교해 보면 영아의 어머니는 관심(M=3.30), 존중(M=3.30), 가르침(M=3.27), 정성(M=3.27), 유아 어머니는 존중(M=3.45), 가르침(M=3.30), 정성(M=3.27), 아동·청소년의 어머니는 가르침(M=3.50)·정성(M=3.45)·관대(M=3.40) 순으로 다른 하위 변인보다 평균이 높았다. 그리고 영아의 어머니는 책임(M=2.93), 수신(M=3.04), 모범(M=3.10), 유아의 어머니는 희생(M=2.80), 책임(M=2.85), 모범(M=2.96), 아동·청소년의 어머니는 희생(M=3.09), 책임(M=3.15), 모범(M=3.19)의 순으로 다른 하위 변인보다 평균이 낮았다.

〈표 14〉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지·덕·체 교육(평균, 표준편차)

하위항목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M	*SD*	*M*	*SD*	*M*	*SD*
지	4.19	1.12	4.01	1.01	4.15	.84
덕	4.55	.83	4.48	.86	4.30	.80
체	4.62	.83	4.56	.76	4.49	.73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발달에 따른 어머니의 지·덕·체 교육 정도의 비교에서는 지·덕·체 교육 모두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지·덕·체 교육 모두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의 경우 지·덕·체 교육전반에 걸쳐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을 하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적 교육의 정도는 초등(M=4.19), 고등(M=4.15), 중등학생(M=4.01)의 어머니 순으로 평균이 높았고, 덕과 체를 강조한 교육은 초등(M=4.55, M=4.62), 중등(M=4.48, M=4.56), 고등학생(M=4.30, M=4.49)의 어머니 순이었다.

〈표 15〉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 차이(빈도, 백분율)

양육유형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χ^2
자부엄모	14(12.4)	30(14.7)	28(17.5)	
자부자모	72(63.7)	95(46.6)	54(33.8)	25.61**
엄부자모	19(16.8)	63(30.9)	63(39.4)	
엄부엄모	8(7.1)	16(7.8)	15(9.4)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의 차이 비교에서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간에 양육행동 유형에 유의한 차이(X^2=25.61, p<.01)가 나타났다.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부모의 양육유형을 살펴보면 초등·중등학생의 경우 慈父慈母의 비율(63.7%, 46.6%)이 높았고, 고등학생의 경우 嚴父慈母의 비율(39.4%)이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초등학생을 둔 아버지 중에는 慈父의 양육행동을 취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높았고, 고교생 자녀를 둔 아버지 중에는 嚴父의 양육행동을 취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를 엄격하게 대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유형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 어머니 모두 慈母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어머니는 예전이나 현대나 여전히 慈母의 양육행동을 취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 '효'에 대한 부모의 역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 및 양육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 아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부모의 전통 '효' 개념에 대한 인식,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 정도, 자녀에 대한 효교육 정도는 어떠하며, 둘째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전통 '효' 개념에 대한 인식,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 정도, 자녀에 대한 효교육 정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어떠한가 였다.

이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은 전통 '효' 개념에 대해 전반적으로 옳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사, 안락, 공경, 수신의 순으로 전통 '효' 개념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간, 우주조화, 절제, 예의의 순으로 전통 '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도 전통 '효' 개념에 대해 전반적으로 옳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락, 공경, 수신, 감사의 순으로 전통 '효'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간, 우주조화, 절제, 승지의 순으로 전통 '효' 개념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태원(1983)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이제까지 전통 효의 개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전통 '효' 개념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다. 부모에 대한 충간, 우주와의 조화, 절제, 예의 등은 현대생활에서도 중요한 가치이며 전통 '효'에 포함된 개념인데 효로 인식하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었다. 전통 '효'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현대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전통 '효' 개념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버지의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 정도, 효교육에 대한 조사결과는 효실천 가능성에 대해 감사, 안락, 공경, 수신의 순서로 현대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충간, 승지, 추모, 절제 순서로 실천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실천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감사, 안락, 공경, 우주조화의 순으로 나타났고, 충간, 봉양, 예의, 승지 순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인식에서도 충간, 절제, 예의는 '효'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 정도도 이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효는 부모자녀 상호호혜의 관계이나, 이조시대 이래로 효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일방적 관계로 많이 인식되어 왔고, 자녀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담은 특히 제사, 봉양에서 두드러지는데(정옥분 외 7, 1996a; 정옥분 외 7, 1996b), 본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효교육에 있어서는 입신, 수신, 예의, 공경, 우주조화의 순으로 교육하는 경향이며, 봉양, 충간, 승지, 추모의 순으로 교육 정도가 낮게 나타나, 봉양, 충간, 추모를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한 가족 내에서 봉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로 추모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어머니의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 정도, 효교육에 대한 조사결과는 감사, 수신, 안락, 입신의 순으로 현대생활에서 효실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충간, 추모, 승지, 봉양 순으로 실천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실천 정도에 대해서

는 감사, 수신, 안락, 우주조화의 순으로 나타났고, 봉양, 추모, 충간, 승지 순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실천 가능하다고 보는 덕목과 실천하고 있는 덕목은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입신, 수신, 우주조화, 예의 순으로 교육하는 경향이었으며, 봉양, 추모, 충간, 승지의 순으로 교육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실천하고 있는 덕목을 교육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부모와의 상호관계보다, 개인적 수양과 범사회적 관계에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부모에 대한 일반적 추모, 봉양 등에 대한 부담의 반발과 현대사회에서 가족집단 가치의 약화,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되었던 의무(옥선화, 1989)에 대한 반발 등으로 남녀동등을 일부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봉양, 충간, 승지 등에 대한 실천정도, 실천가능성, 효교육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전통사회의 가정 내에서의 부모 모시기는 현대사회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효교육과 더불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전통 '효'에 대한 인식,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 자녀에 대한 효교육에 대해 보면 효실천 가능성에 있어 아버지의 경우 공경과 추모의 경우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공경과 추모의 실천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발달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고, 아버지들의 연령에 따른 추모나 공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다. 효실천 정도에 있어서는 추모의 경우 차이가 인정되었는데, 아동·청소년의 아버지의 경우 실천정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실천 가능성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자녀에 대한 교육 정도에 있어서도 추모 경우에만 차이가 인정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보수적인 면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김재은 연구(1988)와 일치된 결과로 여겨진다.

효실천 가능성에 있어 어머니의 경우를 보면 수신, 충간, 봉양, 추모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수신의 경우에는 영아의 어머니가 실천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며, 충간의 경우에는 영아의 어머니가 실천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했고, 봉양과 추모의 경우에도 영아의 어머니가 효실천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충간, 봉양, 추모는 효실천 가능성이 낮다고 여기고 있다. 효실천 정도를 보면 충간, 안락, 추모, 우주조화에서 차이가 인정되었다. 모두 아동·청소년의 어머니가 실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효의 개념에서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여겨진다.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가족집단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높다는 연구(옥선화, 1989)와 일치된 결과로 여겨진다. 효교육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경우 감사, 수신, 공경, 충간, 안락, 봉양, 추모, 승지에서 차이가 인정되었고, 입신, 예의, 절제, 우주조화에서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어머니가 효교육을 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생활에서 실천 가능하다고 여기는 정도와 실제로 실천하는 정도, 그리고 자녀에게 교육하는 정도에서 서로 일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일 경우 효교육이 점차 약화되어가는 추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 효의 개념을 현대에 재조명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추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 효실천 가능성, 효실천 정도, 효교육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경우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자녀의 교육에 있어 현대 우리나라에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아버지보다 높으며, 효에 대한 교육도 이러한 결과의 일부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세째,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실제에 있어 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실제는 영아의 경우 정성, 관심, 존중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엄친, 책임, 가르침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에는 모범, 가르침, 정성 순이었고, 희생, 책임, 엄친이 낮은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르침, 정성, 존중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책임, 관대, 관심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도 영아의 경우 관심, 존중, 가르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책임, 수신, 모범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에는 존중, 가르침, 정성 순이었고, 희생, 책임, 모범이 낮은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르침, 정성, 관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희생, 책임, 모범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 모두 책임, 희생, 믿음 등에 점수가 낮았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직접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양육행동이 더 나타나고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모범, 가르침 등의 훈육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변화되는 것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책임, 희생 등 부모로서 담당해야 하는 덕목은 모든 연령에 있어 낮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우리의 전통이 많이 약화됨을 볼 수 있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知·德·體 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경우 모두 지·덕·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관계없이 체를 제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아버지와 같은 결과이다. 그리고 아동의 이 증가할수록 덕과 체의 점수는 낮아지고 지의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에 따른 知의 증가는 아동이 자라면서 知의 필요성의 증가와 특히 우리의 자녀교육 현실이 지식 위주인데 이런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여겨진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慈父慈母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우리의 전통 유형인 嚴父慈母 유형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부모는 慈父慈母가 많고, 고등학생의 부모는 嚴父慈母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연령이 젊을수록 慈父慈母의 유형이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유형의 변화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의 아버지 양육실제에서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연령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慈父慈母의 유형의 증가는 가족내 엄한 사람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친밀과 엄함의 적절한 조화가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필요하다(이계학 외, 1994). 가족내 엄한 아버지의 부재는 도덕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정현희, 1990), 여기에 대한 경험 연구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정현희와 최경순, 1995).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여러 차례의 집단토론을 거쳐 父慈의 열두가지 덕목을 근거로하여 현대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孝사항에 대해 실천지침을 작성하였다.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아기 자녀의 부모, 학동기 자녀의 부모,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기 부모의 父慈에 관한 가정교육 지침

덕목 \ 지침	유아기 부모의 실천 지침
수 신	•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한다. • 자녀와 배우자 앞에서 몸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한다. •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부모역할을 배운다.
모 범	• 가정형편과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한다. • 자녀가 조부모에게 사랑과 공경의 태도를 갖도록 모범을 보인다. • 먹자, 놀자가 아닌 건전한 가족문화를 만든다. •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킨다. • 자녀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책 임	•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교육과 훈육을 담당한다. • 가족부양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 자녀의 기본 생활습관을 바르게 형성시킨다.
정 성	• 자녀를 돌봄에 정성을 다한다. •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잦은 신체적 접촉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희 생	•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부모의 희생적 정신이 그 밑바탕이 되도록 한다.
인 내	• 화나는 일이 있어도 자제한다. •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데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 지나친 훈계를 삼가한다.
엄 친	• 사랑을 바탕으로 책망한다. • 엄격하면서도 자애롭게 자녀를 대한다.
존 중	• 자녀를 인격체로 대한다. • 나의 자녀가 귀하듯 남의 자녀도 귀하게 여긴다. •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함부로 꾸짖거나 때리지 않는다.
관 심	•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갖는다. •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가르침	• 어릴 때부터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친다. • 어른에게 존대말을 사용하도록 가르친다. • 욕이나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 식사예절을 가르친다. • 몸을 청결히 하고, 옷을 단정히 입도록 가르친다. • 규칙준수와 질서를 가르친다. • 안전교육을 시킨다. • 환경을 보호하도록 가르친다. • 예절을 가르친다. • 타인을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준다. • 힘든 일에 자녀를 참여시켜 협동심을 가르친다. • 형제간에 화목하도록 가르친다. • 명절과 가족의 기념일에 대해 이야기 해 준다.
관 대	• 자녀에게 다정하고 온화한 얼굴로 대한다. • 잘못은 훈계하되 사랑으로 감싸준다.
믿 음	• 자녀를 믿는다.

학동기 부모의 父慈에 관한 가정교육 지침

덕목 \ 지침	학동기 부모의 실천 지침
수 신	•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다. •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한다. • 자녀와 배우자 앞에서 몸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한다. •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부모역할을 배운다.
모 범	• 가정형편과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한다. • 자녀가 조부모에게 사랑과 공경의 태도를 갖도록 모범을 보인다. • 먹자, 놀자가 아닌 건전한 가족문화를 만든다. • 가정과 사회에서 성실히 일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 자녀 앞에서 남을 욕하지 않는다.
책 임	• 가족 부양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정 성	• 자녀를 돌봄에 정성을 다한다. •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자녀와 대화하는 데 정성을 기울인다.
희 생	•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부모의 희생적 정신이 그 밑바탕이 되도록 한다.
인 내	• 화나는 일이 있어도 자제한다. • 지나친 훈계와 지나친 칭찬을 삼가한다.
엄 친	• 자녀의 잘못은 분명히 훈계한다. • 자녀를 꾸짖더라도 '정'을 끊는 말은 하지 않는다. • 엄격하면서도 자애롭게 자녀를 대한다.
존 중	• 자녀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나의 자녀가 귀하듯 남의 자녀도 귀하게 여긴다. •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함부로 꾸짖거나 때리지 않는다. • 자녀의 개성과 독립적 사고를 존중한다.
관 심	•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애정과 관심을 표현한다. •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가르침	• 자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가르친다. • 부모에게 항상 공손한 태도를 취하도록 가르친다. • 욕망을 절제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도록 가르친다. • 어른에게 존대말을 사용하도록 가르친다. • 욕이나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 식사예절을 가르친다. • 몸을 청결히 하고, 옷을 단정히 입도록 가르친다. • 규칙준수와 질서를 가르친다. • 안전교육을 시킨다. • 환경을 보호하도록 가르친다. • 예절을 가르친다. • 가족의 가치관을 가르친다. • 타인을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준다. • 힘든 일에 자녀를 참여시켜, 협동심을 가르친다. •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친다. •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가르친다. • 가족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가르친다. •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가르친다. • 자녀의 교우관계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 부지런함과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친다.
관 대	• 자녀에게 다정하고 온화한 얼굴로 대한다. • 잘못은 훈계하되 사랑으로 감싸준다. • 자녀의 장점을 찾는다.
믿 음	• 자녀를 믿는다.

청소년기 부모의 父慈에 관한 가정교육 지침

덕목 \ 지침	청소년기 부모의 실천 지침
수 신	•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다. •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한다. • 자녀와 배우자 앞에서 몸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한다. • 청소년 세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모 범	• 가정형편과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한다. • 먹자, 놀자가 아닌 건전한 가족문화를 만든다. • 웃어른으로서의 권위를 갖춘다. • 자녀에게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 가정과 사회에서 성실히 일하는 태도와 자세을 보여준다.
책 임	• 가족의 공동목표를 성취하도록 노력한다. • 가정의 질서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다. • 가족 부양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정 성	• 자녀의 건강에 대해 배려한다. • 자녀를 돌봄에 정성을 다한다. •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 • 자녀의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 시간을 갖는다.
희 생	•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데 있어서 부모의 희생적 정신이 그 밑바탕이 되도록 한다.
인 내	• 화나는 일이 있어도 자제한다. • 자녀에게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자제한다. • 지나친 훈계를 삼가한다.
엄 친	• 자녀를 꾸짖더라도 '정'을 끊는 말은 하지 않는다. • 엄격하면서도 자애롭게 자녀를 대한다. • 가족생활의 질서를 위한 규칙과 기준을 세운다.
존 중	• 가족 각자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자녀의 개성과 독립적 사고를 존중한다. • 자녀의 목표를 인정해준다.
관 심	•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 자녀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가르침	• 자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알게하고 바른 도리를 가르친다. • 부모에게 항상 공손한 태도를 취하도록 가르친다. • 자녀가 지나치게 편한 것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 욕이나 거친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 몸을 청결히 하고 옷을 단정히 입도록 가르친다. • 규칙준수와 질서를 가르친다. • 가족의 가치관을 가르친다. • 타인을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 자신감과 자율감을 길러준다. •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준다. • 힘든일에 자녀를 참여시켜 협동심을 가르친다. •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친다. •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가르친다. • 가족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가르친다. •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가르친다. • 자녀의 교우관계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 부지런함과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친다.
관 대	• 젊은 세대의 변화를 아량을 갖고 관대히 대한다. • 장점이 없어보여도 관용을 베푼다.
믿 음	• 자녀를 믿는다.

참 고 문 헌

김명성(1982). 효의 현대 윤리적 조명.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수(198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 교육관과 양육태도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유혁(1977). "효의 본질". **忠孝思想**.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김은아(198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상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은(1988).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재만(1988). 효와 현대교육적 이해. 대광문화사.

김창련(1985). 효의식의 본질과 그 변천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남태원(1983). 젊은이들의 효 관념의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미옥 · 김정준(1992). 한국 전통여성교훈서에 나타난 어머니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인문사회과학논총 제6집.

박영충(1985). 유아교육기관의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황(1989). **전통윤리의 현대적 재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89-117.

성규택(1995). **새 시대의 효**. 연세대 출판부.

손인수(1992). **한국인의 가정교육**. 서울: 문음사.

손직수(1980). 조선시대 여성교훈서에 나타난 어머니 역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청구논문.

손직수(1994). '사소절'에 나타난 전통가정교육.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영희(1989).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한 자녀양육:「동몽선습」「격몽요결」「사소절」「고암가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우영희(1992). 한국전통가정의 자녀양육. 국민대 교육연구소. **교육논총**, *12*(1).

유가효(1995). 한국과 미국의 자녀양육 방식의 비교 문화적 고찰과 방향 모색, 1995년도 한국 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63-88.

유점숙(1994).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대구:중문사

유점숙(1995). 조선시대 아동 효행교육의 현대적 의미. 1995도 한국 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pp. 45-62.

이경식(1962). 효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계학외(1994).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기백(1980). **명심보감**. 홍신문화사.

이기백(1982). **동몽선습**. 홍신문화사.

이기백(1982). 소학. 홍신문화사.

이기백 해석(1994). **童蒙先習**. 서울: 홍신신서.

이동원(1983). 도시가족에 관한 연구(II), 이대논총 39, 한국문화연구원.

이옥자(1983).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도 조사연구.

이해철 역(1987). **小學**. 서울: 명문당.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1996a).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모색.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보고서.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1996b). 한국인의 효 인식 및 실천정도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1996c). 전통가족에서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 46-66.

정현희(1986). 미취학 아동기 가족의 어머니 교육관.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13*.

정현희(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정현희(199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20*.

정현희, 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6*(1), 33-48.

차은영(1987).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아버지와 자녀간의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경순(1990b). 아동-아버지관계에 관한 연구(Ⅱ):우리나라 연구의 동향. 부산여대 논문집, *30*, 491-518.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한국아동학회(1995). 세계화를 위한 효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방향모색.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아동학회.

Dix, T. D., Ruble, D. N., & Zambardo, R. J. (1989). Mothers'implicit theries of discipline: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attribution process, *Child Development, 60*, 1373-1391.

Grossman, F. K., Pollack, W. S., & Golding, E. (1988). Fathers and children: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82-91.

Nsamenang, A. B. (1992). *Human Development in Cultural Context*:A Third world perspective. N.Y.:Sage Publication.

Parke, R. D., & Tinsley, B. J. (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John Wiley & Sons, Inc.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Saavedra, J. M. (1980). Effect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control on the self - evaluation of Puertorican Adolescent Males. *Behavior Science Research, 15*.